

기술 2024-215

2024.12.05.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IT부품

# 상신이디피(09158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작성자 성재욱 선임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IRTV)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525-77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신이디피(091580)

안전한 이차전지를 위한 CAN 제조 회사

## 기업정보(2024.11.28. 기준)

대표자	김일부
설립일자	1992년 01월 28일
상장일자	2007년 05월 23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2차전지 제조업
주요제품	2차전지부품

## 시세정보(2024.11.28. 기준)

현재가(원)	7,96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69
발행주식수(주)	13,428,219
52주 최고가(원)	20,700
52주 최저가(원)	7,180
외국인지분율(%)	3.98
주요주주(%)	
김일부	15.16

## ■ 국내 이차전지 CAN 제조의 선두주자

상신이디피(이하 ‘동사’)는 1992년 1월 설립된 이차전지 CAN 제조 전문기업으로 2007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5개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원형, 각형, 중대형 등 다양한 사이즈의 이차전지 CAN을 제조 및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고용량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인디애나주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 ■ 고품질의 이차전지 CAN 제조 기술 보유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무게 및 부피 당 에너지밀도가 높아 소형화에 용이하고, 카드뮴, 납, 수은 등 환경규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 및 폭발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차전지의 약점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충격에도 강한 case가 필요하다. 동사는 자체적으로 이차전자 CAN의 금형설계 및 제작, 생산 공정 설계, 제품 설계, 품질 관리 및 안전 테스트 등을 수행하여, 다양한 사이즈로 폭발 및 화재에 강한 CAN을 납품하고 있다.

## ■ 안정적인 매출 기반 해외 생산시설 투자

동사는 주요 고객사와 오랜기간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협력사 중 높은 납품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와 중대형 ESS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동사도 헝가리,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 공장을 설립하여 주요 고객사의 해외수주 및 발주요청 시 빠르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인디애나에 이차전지 부품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1	1,975	30.2	197	9.9	175	8.9	20.2	9.7	97.8	1,330	7,702	11.7	2.0
2022	2,908	47.2	328	11.3	245	8.4	21.9	11.0	99.7	1,819	9,089	8.2	1.6
2023	3,016	3.7	302	10.0	262	8.7	19.5	9.8	97.6	1,944	10,904	8.1	1.5

### 기업경쟁력

설계-납품 원스톱 공정 프로세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전지 부품인 CAN, CID, CAP ASS'Y 등의 생산을 위하여 금형 설계 및 제작, 공구 설계 및 제작, 생산 공정 설계, 제품 설계,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및 성능 테스트 등을 자체 수행 가능</li> <li>- 금형의 설계에서부터 제품의 양산까지 3개월이 소요되어 일본 업체와 동등한 Lead Time 수준(생산부터 제품출고까지 3~4일이면 충분)</li> </ul>
주요 고객사 확보와 생산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래처인 삼성SDI(주)에 대한 납품 점유율이 타 경쟁사 대비 우월하며,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매출 실현 가능</li> <li>-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미국에 생산시설 확보하여 해외 고객사 요청에도 빠른 대응 가능</li> </ul>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맨파워, 인프라 구축) 3D설계 DB구축, 고속 성형 해석 System, 고속 정밀 가공 기기/고강도 Tool 보유</li> <li>- (업계 최단 수준의 개발 Lead Time) 이차전지 분야 업체 최단 수준의 Lead Time(소형: 45일, 중대형: 90일)</li> <li>- (초정밀 Deep Drawing 기술) 소형: 원재료 두께 50% 이상 성형, 중대형: 가로-세로 비율 12:1 구현 가능</li> </ul>
주요제품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중·대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p><b>xEV</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xEV용 정밀부품 공급</li> <li>• 축적된 Can 기술 및 제조 노하우 기반 신규 시장 경쟁 우위 확보</li> </ul>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소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 <p><b>원형Can / CI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공구, 노트북</li> <li>• IT 기기와 결합된 상품 지속적 출시로 수요 증가</li> <li>• 고밀도 노트북용 안전소자 국산화</li> </ul>  </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b>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S용 정밀부품 공급</li> <li>•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 해결 위한 시장 수요증가 추세</li> <li>• 중·대형 2차 전지 정밀부품 시장 선점 기술 및 Capa 확보</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각형Can / Cap Ass'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액션), 기타 IT기기 등</li> <li>• 고도의 정밀 기술력 필요한 산업특성, 진입장벽↑</li> <li>• 소재 두께 감소(50~62.2%) 및 Swelling 방지 처리</li> </ul>  </div> </div>

### 시장경쟁력

글로벌 전기차 및 ESS 시스템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전지 시장의 수요는 기존의 스마트폰, 노트북 PC, 태블릿PC 등 Mobile IT 산업에서 최근에는 자동차, ESS, 전동공구, 가전제품 시장으로 다변화</li> <li>- 전기차 시장은 이차전지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며 수십 년 내에 전동차량이 기존 차량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li> </ul>
친환경 에너지 사용 기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기조가 강화, 유럽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li> </ul>

## I. 기업 현황

## 리튬이온 이차전지 원형/각형 CAN 제조 전문기업

동사는 리튬이온 방식의 이차전지 중 전동공구 등에 사용되는 원형 CAN,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EV CAN, 대용량 저장장치 ESS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CAN을 정확하고 빠르게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 ■ 회사의 개요

동사는 이차전지의 후방 재료산업에 참여하고 업체로, 전동기구,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Case를 주력으로 제조 및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1992년 1월 28일에 김일부 대표이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본점을 두고 있다. 2007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이후에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에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소형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던 이차전지가 중대형 가전제품, 무인항공기(드론),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용이 다변화되고, 이와 함께 고용량/고출력/고안정성이 이차전지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짐에 따라 관련된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한 동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동사 주요 연혁

일자	연혁 내용
1985.05	상신정밀(개인) 설립
1992.01	상신이디피 주식회사 설립
2003.05	우수 협력회사 상 수상(삼성SDI)
2004.01	대신전자 지분투자
2005.10	환경경영시스템 인증획득(KS A 14001:2004 / ISO 14001:2004)
2007.05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2007.08	해영전자(주) 인수
2008.04	대신전자 지분 100% 소유
2008.0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경기도청)
2010.06	자동차 2차전지용 부품의 제조 인증 획득(ISO/TS 16949:2009)
2013.02	상신에너텍(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
2015.02	(주)태화프라텍 인수
2016.01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충남도청)
2018.11	상신헝가리(헝가리 현지법인) 설립
2019.04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0.10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획득(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3.01	상신인디애나(미국 현지법인) 설립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및 홈페이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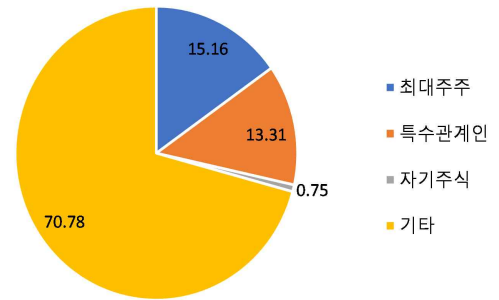
2024년 9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일부 대표이사로 15.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장태선 외 4인의 특수관계인이 13.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2. 동사 지분구조 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김일부	최대주주	2,036,007	15.16%
장태선	특수관계인	969,503	7.22%
김민철	특수관계인	521,604	3.89%
김지현	특수관계인	208,685	1.55%
정현	특수관계인	39,090	0.29%
국명호	특수관계인	48,657	0.36%
상신이디피(주)	자기주식	100,000	0.75%
기타	-	9,504,673	70.78%
합계		13,428,219	100.00%

그림 1. 동사 지분구조 현황

(단위: %)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동사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5개의 해외법인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TIANJINDAXIN ELECTRONICS (대신전자)는 이차전지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3년 12월 설립한 중국(천진)법인이며, 동일한 목적으로 2013년 상신에너지(말레이시아), 2015년 상신하이텍(중국 서안), 2018년 상신헝가리(헝가리), 2023년 상신인디애나(미국)를 설립하였다.

표 3. 동사 종속회사(개회사, 관계회사) 현황

상호	설립일	소재지	주요사업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백만원)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TIANJINDAXIN ELECTRONICSCo.,LTD (대신전자)	2003.12	중국 천진	이차전지 생산 및 판매	37,929	지분율 100%	해당
SANGSINENERTECHSDN BHD (상신에너지)	2013.02	말레이시아		47,420		해당
SANGSINHITECHCO.,LTD (상신하이텍)	2015.02	중국 서안		18,432		해당사항 없음
SANGSINHUNGARYKFT (상신헝가리)	2018.11	헝가리		69,873		해당
SANGSININDIANA,INC. (상신인디애나)	2023.01	미국		2,779		해당사항 없음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 대표이사

동사의 창업자인 김일부 대표이사는 대구광역시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주)와 삼성SDI(주) 등 대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였다. 이후, 1992년 동사를 창업하였으며, 초정밀 Press 기술을 기반으로 과거 브라운관 TV에 적용되던 Crt Gun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이차전지 사업분야의 기반이 되는 초정밀 부품의 금형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 ■ 주요 사업 분야 및 사업 부문별 매출실적

동사의 주요 사업분야는 이차전지 패키징 관련 부품으로 CAN(원형), CAN(중대형), 기타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CAN(원형)’은 중소형 전자기기(가전제품, 태블릿PC, 노트북) 등에 주로 활용되는 품목으로 전지의 내용물(전해액, 양극, 음극, 세퍼레이터)을 담은 case의 일종이다. CAN(원형)의 2024년 3분기 누적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819억 원이며 40.6%의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AN(중대형)’은 자동차 및 ESS용 이차전지 case로서, 2024년 3분기 누적매출은 연결재무기준으로 약 962억 원이며, 47.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제품(소형, 각형, CID, TAB 단자류)과 상품은 각각 약 25.2억 원, 1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각각 12.5%,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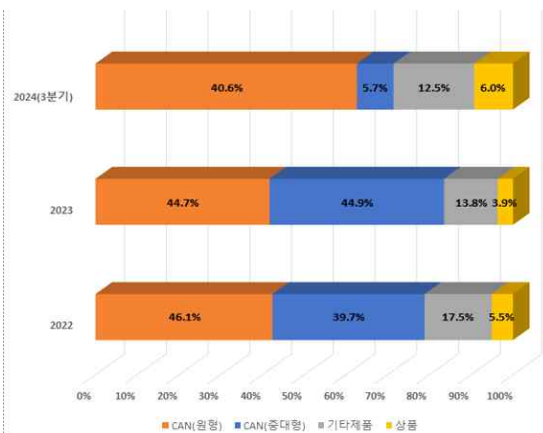
표 4. 주요 사업부문 및 관련 매출실적

(단위: 천 원, K-IFRS 연결 기준)

사업부문	매출 유형	품목	구분	2024(3분기)		2023		2022	
				매출액(천원)	비중	매출액(천원)	비중	매출액(천원)	비중
ENERGY (2차전지류)	제품	CAN (원형)	수출	21,172,103	10.50%	46,169,482	15.31%	29,699,674	10.21%
			내수	60,709,883	30.10%	88,789,814	29.44%	104,423,010	35.91%
			합계	81,881,986	40.60%	134,959,296	44.74%	134,122,684	46.12%
		CAN (중대형)	수출	7,100,569	3.52%	3,580,358	1.19%	7,686,313	2.64%
			내수	89,123,029	44.19%	131,934,093	43.74%	107,699,851	37.03%
			합계	96,223,598	47.71%	135,514,451	44.93%	115,386,164	39.68%
		기타	수출	11,471,179	5.69%	20,773,147	6.89%	22,820,978	7.85%
			내수	13,809,363	6.85%	20,836,771	6.91%	28,194,505	9.70%
			합계	25,280,542	12.54%	41,609,918	13.79%	51,015,483	17.54%
	상품	-	수출	6,811,232	3.38%	8,798,134	2.92%	12,560,239	4.32%
			내수	5,281,418	2.62%	2,969,367	0.98%	3,389,078	1.17%
			합계	12,092,650	6.00%	11,767,501	3.90%	15,949,317	5.48%
합계			수출	46,555,083	23.08%	79,321,322	26.30%	72,767,203	25.02%
			내수	168,923,693	83.76%	244,530,045	81.07%	243,706,444	83.80%
			내부거래	(13,809,848)	(6.85%)	(22,215,648)	(7.37%)	25,662,520	(8.82%)
			합계	201,668,928	100.00%	301,635,719	100.00%	290,811,127	100.00%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그림 2. 사업분야별 매출 비중 (단위: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그림 3. 연도별 매출비중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당사는 환경 경영을 실천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음.

S

사회책임경영

◎ 당사는 휴가 및 경조금 지급 등의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팀 리더십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당사는 홈페이지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게시하고 있음.

◎ 당사는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II. 시장 동향

### No.1 위한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심화

이차전지의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전후방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시장참여자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차전지는 연구개발에 많은 개발비용과 오랜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에 활용되는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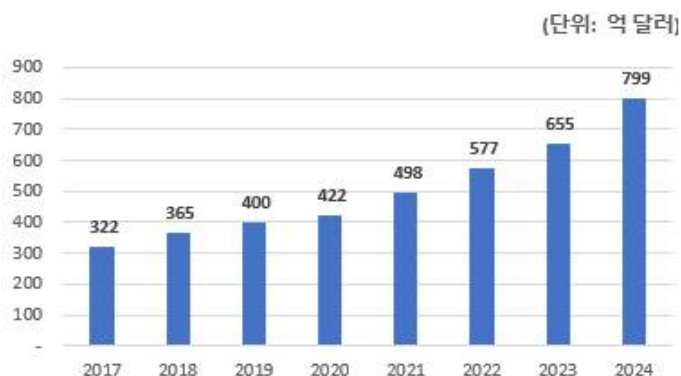
### ■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

이차전지는 전통적으로 휴대성이 가능한 소형 전자기기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소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차전지 산업은 연구개발에 천문학적인 개발비용과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차전지의 소재가 갖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이를 안전하게 운반하고 폭발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품질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 ■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과 패권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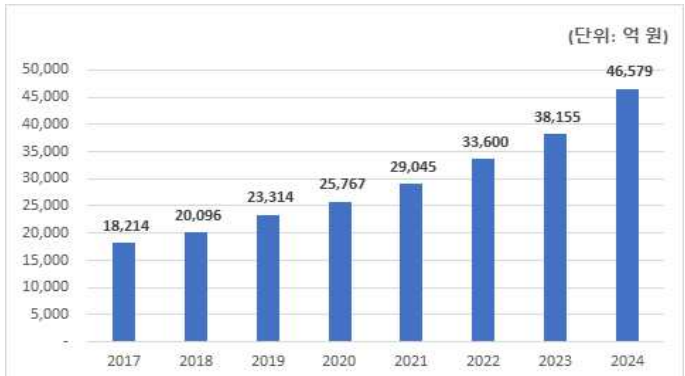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리튬이온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7년 322억 달러에서 2019년 400억 달러로 연평균 11.43% 성장하였으며, 2019년 이후 연평균 14.85% 성장하여 799억 달러 수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리튬이온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8,214억 원에서 2019년 2조 3,314억 원으로 연평균 13.13% 성장하였으며, 2019년 이후 연평균 14.85% 성장하여 2024년에는 4조 6,579억 원의 수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글로벌 리튬이온 이차전지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Lithium ion Battery Market', MarketsandMarkets (2020),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가공

그림 5. 국내 리튬이온 이차전지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자료: 'Lithium ion Battery Market', MarketsandMarkets (2020),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가공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관련 시장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Panasonic은 차량용 전기부품, 전자재료, 일차전지, 이차전지 등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전기화학적 내부 저항 측정법을 개발하여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과 리튬금속의 음극재를 활용하여 전기차용 전고체전지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준으로는 (주)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주), SK온(주) 등 대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표 5. 글로벌 이차전지 업체별 판매량 및 점유율(전기차 분야)

(단위: GWh, %)

상호	2020		2021		2022	
	판매량(GWh)	점유율(%)	판매량(GWh)	점유율(%)	판매량(GWh)	점유율(%)
Panasonic(일본)	27	18	36	12	38	7
CATL(중국)	36	25	100	33	192	37
(주)LG에너지솔루션 (대한민국)	34	23	59	20	70	14
삼성SDI(주) (대한민국)	9	6	15	5	24	5
SK온(주) (대한민국)	8	6	17	6	2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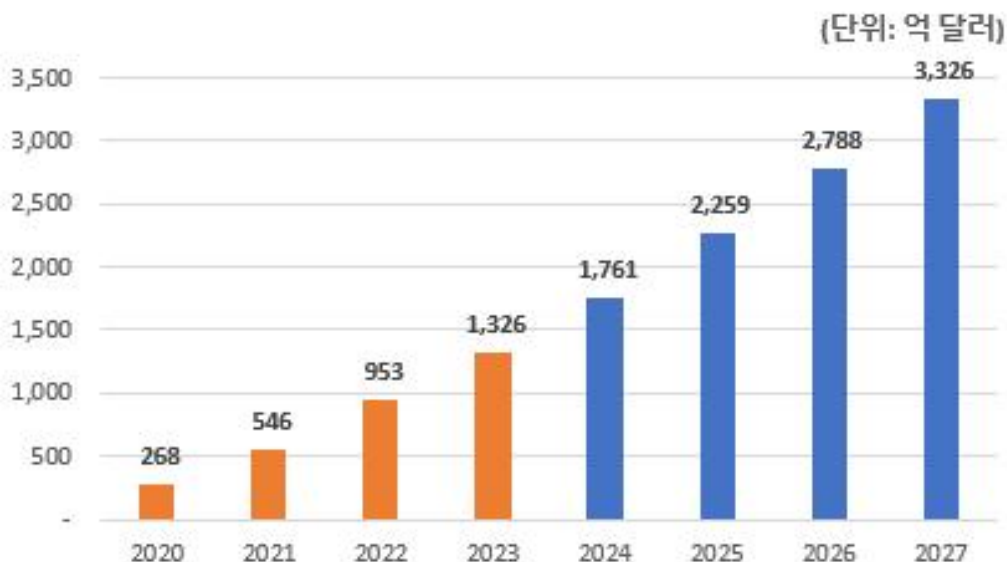
자료: 전기차용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개발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2023.0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현황

앞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판매량과 점유율을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이차전지 시장 중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팩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68억 달러에서 2022년 953억 달러로 연평균 88.7% 성장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7년까지는 연평균 28.4% 성장하여 3,262억 달러 수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글로벌 기업 간 경쟁과 공격적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글로벌 이차전지 업체별 판매량 및 점유율(전기차분야)

(단위: 억 달러)



자료: 전기차용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개발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2023.0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III.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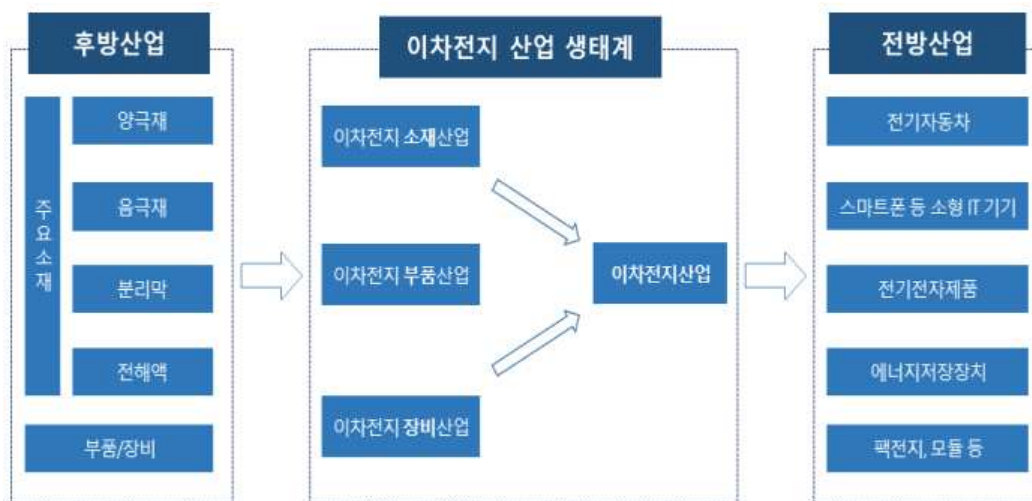
#### 안전한 이차전지를 위한 CAN 개발

이차전지는 석유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소재의 특성상 발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사는 이러한 이차전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CAN을 제조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 ■ 이차전지의 특징

이차전지는 방전된 이후에도 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의미한다. 이차전지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이 있다. 대표적인 이차전지로 꼽히는 리튬이온전지는 동일 용량의 다른 배터리보다 무게 및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높아 소형화하는데 용이하고, 유해 물질인 카드뮴, 납, 수은 등과는 달리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리튬이온전지의 전해질은 발화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용량이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측되는 등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동사가 주력하는 재료산업은 이차전지의 후방산업에 속하며 이차전지 산업은 하나의 기업이 전후방산업 전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산업별로 특정 기능만 담당하는 개별 기업들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7.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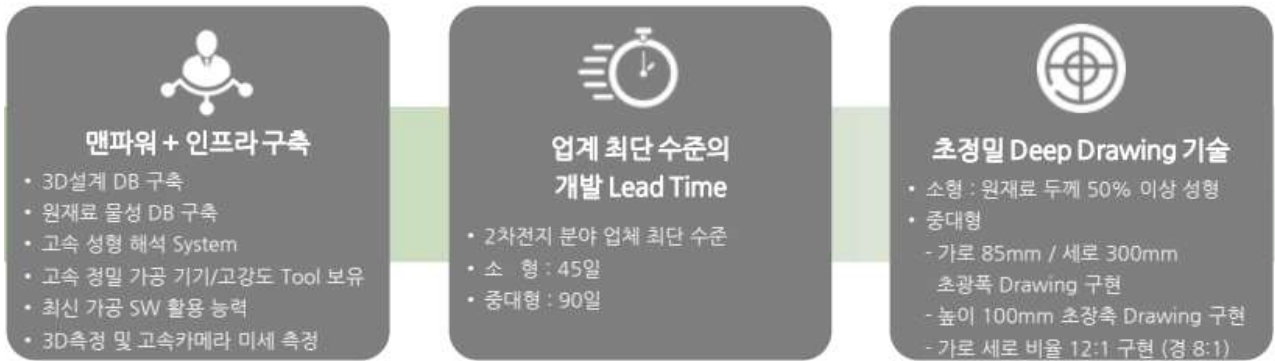
자료: 전기차용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개발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2023.02)

#### ■ 보유 기술경쟁력: 설계경험, Lead Time, 고품질

동사의 경쟁력은 크게 설계 경험, 일관된 품질, Lead Time(주문-납품 기간)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동사는 오랜 업력으로 쌓인 설계 DB를 토대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맞춤형 3D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자체 고속 정밀 가공 기기와 고강도 설비를 갖추고 있어 대부분 3개월 기간 안에 고객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3개월의 Lead Time은 일본 업체와 동등한 수준이며, 동사의 주요 고객인 삼성SDI(주)의 45일 Lead Time을 상회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폭발위험이 있는 제품 특성상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세밀한 사양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동사는 보유하고 있는 Deep Drawing 및 압연기술과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중대형(각형) CAN 제작 과정 및 특징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 ■ 다양한 형태의 이차전지 CAN 제조 기술

동사가 개발한 중대형(각형) CAN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의 역할을 하며,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한 Deep Drawing 및 Ironing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다. 연구 초기에는 폭 150mm 이하의 크기를 주로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폭 280mm, 두께 60mm, 높이 120mm에 이르는 중대형 CAN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높이 200mm 이상의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삼성SDI(주) 등에 10여 개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그림 9. 중대형(각형) CAN 제작 과정 및 특징

제 품	제작(DRAWING + IRONING) 과정	특 징
	<p style="text-align: center;">Drawing process CAE</p>	원재료의 두께를 DRAWING과 IRONING을 통해서 최대 50%를 줄여 요구하는 두께 및 CELL의 용량 증가를 달성하게 하며, 얇은 두께로 동일 부피대비 고강성을 구현함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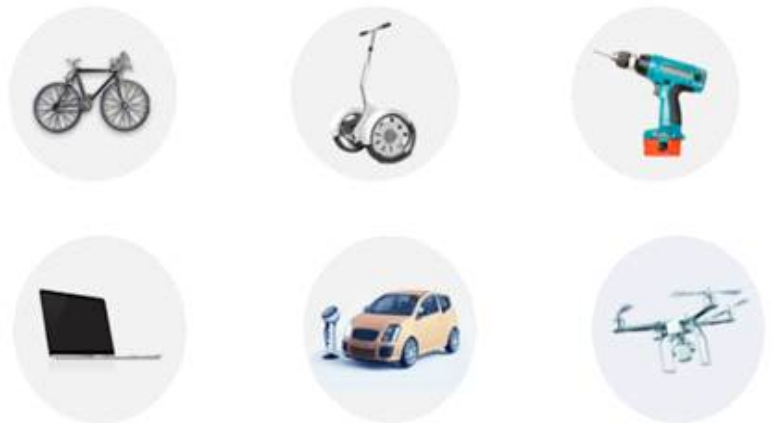
동사의 원형 CAN은 전동자전거, 전동공구, 노트북 등에 활용되며, 최근에는 고출력, 고밀도 ESS와 xEV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원형 CAN은 NTSN T-1(Nickel도금 된 철) 소재에 Deep Drawing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되는데, 찌힘이나 구부러짐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기술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제품이다. 원형 CAN은 대개 표준화된 크기로 생산되며, 무엇보다 폭발과 화재의 위험도를 줄이고 충격/진동/낙하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납품이 가능하다.

그림 10. 원형 CAN 제품



자료: 동사 홈페이지

그림 11. 원형 CAN 주요 활용처



자료: 동사 홈페이지

동사는 원통형 이차전지의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소자(CID, Current Interrupt Device) 제조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CID는 이차전지의 내부압력이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내부 가스 배출량을 높여 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설계되는데, 동사는 자체 금형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CDI에 필요한 여러 부품(CID VENT, CAP DOWN 등)을 자체 개발하여 고밀도 안전소자를 국산화하였다.

그림 12. CID 제품 소개 및 제작 프로세스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 IV. 재무분석

## 고부가가치 중대형 CAN 매출 비중 확대 및 비용 효율화로 흑자 기조 유지

동사는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원통형 및 중대형 CAN 생산실적이 고르게 증가하며 성장해 오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중대형 CAN 매출 비중 확대 및 높은 수율과 철저한 비용 관리로 우수한 수익성을 견지하고 있다.

## ■ 자동차 및 ESS용 중대형 CAN 공급 증가로 매출실적 견인

동사는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원통형 및 중대형 CAN 생산실적이 고르게 증가하며 성장해 왔다. 동사의 최근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중대형 CAN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2021년 1,975억 원(+30.2%, yoy), 2022년 2,908억 원(+47.2%, yoy)의 매출액을 시현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다만, 2023년에는 자동차 및 ESS용 중대형 CAN의 공급 증가에도 원형 CAN와 소형각형 CAN, CID, TAB 등의 수주 감소로 매출액 3,016억 원을 기록, 3.7%의 매출액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인 중대형 CAN은 2024년 3/4분기 매출액 962억 원, 매출비중 47.7%으로 직전동기대비(2023년 3/4분기, 매출액 1,038억 원, 매출비중 45.1%) 2.6% 비중을 확대하며 동사 실적을 견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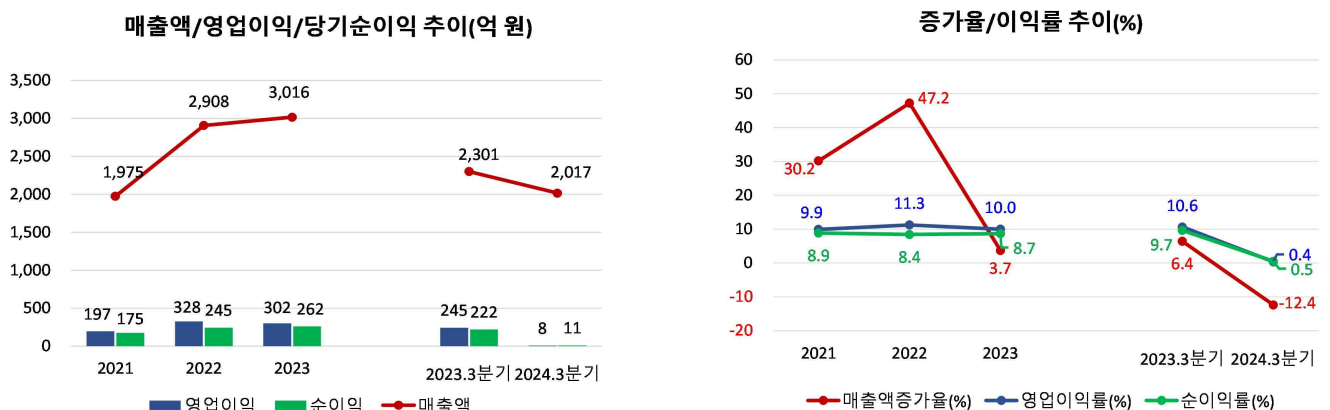
## ■ 전체 외형 성장에 따른 비용 효율화로 흑자 기조 유지

동사는 주요 제품 중 이익률 높은 중대형 CAN 매출 비중 확대와 전체 외형 성장에 따른 비용 효율화로 최근 3개년간 영업이익률은 2021년 9.9%, 2022년 11.3%, 2023년 10.0%를 시현하며 우수한 수익성을 보였다. 순이익률 측면에서도 2021년 8.9%, 2022년 8.4%, 2023년 8.7%의 높은 이익률을 보였다. 동사는 2021년 초부터 이어진 알루미늄(중대형 캔 원재료)과 니켈도금강판(원통형 캔 원재료)의 가격 상승 지속에도 불구하고 2022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2023년까지 10% 이상의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등 20년 업력에서 비롯한 높은 수율과 철저한 비용 관리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다.

한편, 2024년 3/4분기 매출액 감소와 함께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이 가중되며 영업이익 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0.4%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0.2%p 감소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에 따른 순이익 11억 원으로 순이익률 0.5%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9.2%p 감소하였다.

그림 13.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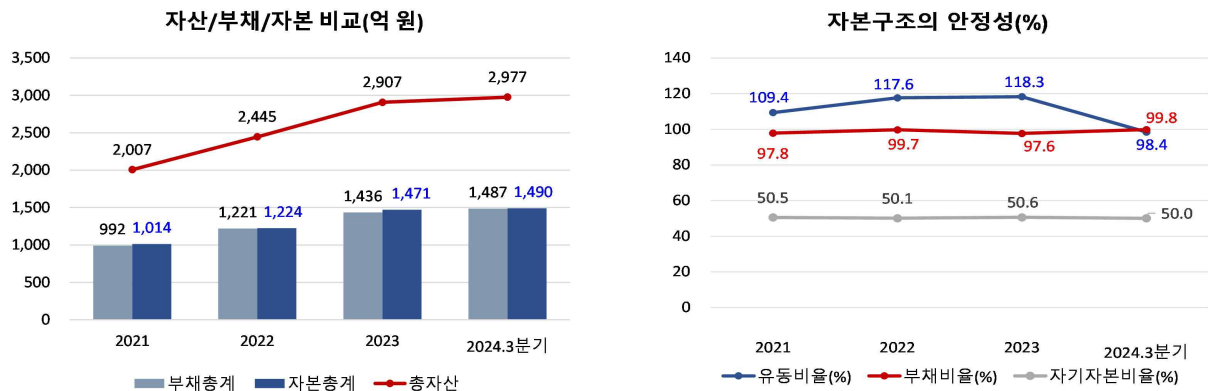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 자본구조 견고하며, 자본구조 안정성 지표 양호한 수준 견지

동사의 최근 3개년간 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50.5%, 2022년 50.1%, 2023년 50.6%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2021년 97.8%, 2022년 99.7%, 2023년 97.6%로 10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유동비율의 경우 2021년 109.4%, 2022년 117.6%, 2023년 118.3%로 100%를 상회하고 있는 바, 동사의 자본구조 안정성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견지해 오고 있다.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창출력이 뛰어나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의 자금 소요에 무리가 없으며 기말 현금보유액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한편, 2024년 3/4분기말 현재 자기자본비율 50.0%, 부채비율 99.8%, 유동비율 98.4%로 양호한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6.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1	2022	2023	2023.3분기	2024.3분기
매출액	1,975	2,908	3,016	2,301	2,017
매출액증가율(%)	30.2	47.2	3.7	6.4	-12.4
영업이익	197	328	302	245	8
영업이익률(%)	9.9	11.3	10.0	10.6	0.4
순이익	175	245	262	222	11
순이익률(%)	8.9	8.4	8.7	9.7	0.5
부채총계	992	1,221	1,436	1,411	1,487
자본총계	1,014	1,224	1,471	1,438	1,490
총자산	2,007	2,445	2,907	2,849	2,977
유동비율(%)	107.4	117.6	118.3	123.6	98.4
부채비율(%)	97.8	99.7	97.6	98.1	99.8
자기자본비율(%)	50.5	50.1	50.6	50.5	50.0
영업활동현금흐름	187	366	466	318	142
투자활동현금흐름	-321	-301	-271	-163	-501
재무활동현금흐름	65	89	219	154	126
기말의현금	298	405	821	720	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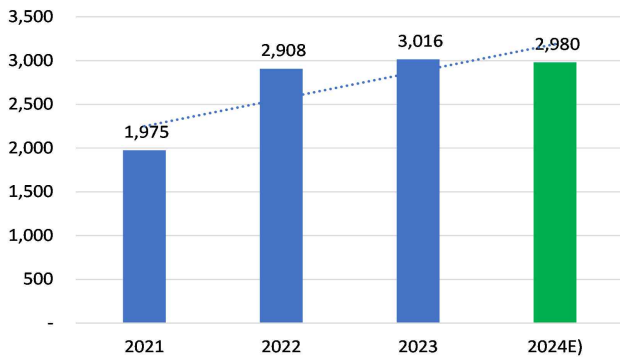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다져온 주요 고객사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배터리 CAN 수요가 지속되며 원통형, 중대형 CAN 생산 실적이 증가해 왔다. 다만, 2024년 실적 부진으로 동사의 3/4분기 매출실적 또한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2차전지 업황 부진에도 주요 고객사는 고객 확대, 신제품 출시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유럽/북미 투자 확대로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바, 2025년 이후 동사의 실적은 동반 상승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2023년 1월 상신인디애나(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대형 CAN 라인 신축을 진행중으로 헝가리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등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보로 글로벌 시장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15. 매출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7. 사업부문별 실적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부문	유형	품목	2022	2023	2024(E)
2차 전지류	제품	CAN(원형)	1,341	1,349	1,252
		CAN(중대형)	1,192	1,355	1,430
		기타	323	264	238
	상품	-	52	48	60
합계			2,908	3,016	2,98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중대형 이차전지 매출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강화

동사는 주요 고객사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하였으며, 협력사 중 높은 납품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가 진출한 헝가리, 미국 등에 대규모 xEV, ESS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향후에도 높은 매출성장이 기대된다.

### ■ 주요 고객사와 협력체계 강화 및 해외사업 확대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이차전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함에 따라, 동사도 이에 발맞춰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매출을 늘리고 있다. 동사는 주요 고객사의 배터리 셀 공장이 있는 헝가리에 발 빠르게 진출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10호 생산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동사는 고객사의 기술개발에 맞춰 현재 차세대 원형 CAN 46Φ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근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 GM, 스텔란티스 등이 46Φ 원통형 배터리 장착을 검토하고 있어 주요 고객사가 이와 관련하여 수주에 성공한다면, 동사도 낙수효과로 대대적인 매출성장이 기대된다.

헝가리 공장뿐만 아니라 동사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 주 코코모 지역에 스타플러그 에너지 배터리 공장 남쪽에 대규모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모든 미국 내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국 현지에 선진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동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동사 해외법인 현황 및 헝가리 공장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4.09.) 및 홈페이지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투자 의견 없음			

###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4.11.28.)

### 최근 6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상신이디피	X	X	X